

조계종 임시총회 '파행'

동국학원 관련 안전상정놓고 마찰

정화-유회거듭 1건도 처리 못해

조계종 147회 임시총회가 안전상정도 하지 못한 채 정화와 유회를 거듭하다 막을 내렸다.

18일 오전 10시 78명의 중앙총회의원 가운데 66명이 참석해 개최한 총회는 동국학원 관련 안전 상정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문제의 안건은 '동국학원 탈종단화 및 부정·비리 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안건은 개최 의사와 전회의록 낭독 이후 안전 조정을 위해 열린 총무분과위원회와 의장단·각 상임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 대책 여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총회의장 법등스님은 "11개 종립학교 가운데 동국학원만 다루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며 "안전으로 상정할 의향이 없

다"고 말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원행, 정법스님 등은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묵살하는 의장이 어디 있다. 의장이 안전을 되돌릴 권한이 있는가"라며 법등스님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한때 "(의사 진행) 하기 싫으면 내려가라" "협박하는거냐" 등의 말이 오가기도 했으며, 급기야 법등스님이 의장석을 뜨는 일까지 벌어졌다.

총회는 회기 이틀째인 19일 오전 10시 개회했다. 이날도 동국학원 관련 안전 대책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다 휴회했다. 이로써 이번 147회 임시총회는 안전 상정도 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총회 파행의 원인은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와 자기 의사만

관철시키려는 타협없는 풍토에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적으로 동국학원 관련 안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장 법등스님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은 "총무분과위원들과 각 상임위원장이 조정해 채택한 안건을 거부하는 것은 횡포"라며 의장 법등스님에게 총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법등스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중도롭게 미안할 따름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치 동국대에 부정·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중도와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안전의 명칭을 '동국학원 운영실태 파악'으로 수정해 논의자는 절충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총회의원들은 "이번 총회를 유회시켜 문제(조계사신협 공판 명령 사건)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정 계파를 꼬집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8일 개최한 조계종 147회 임시총회가 안전도 상정하지 못한채 정화와 휴회만 거듭하다 끝났다. 휴회중 한 총회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태고보우국사 캐릭터.

태고종 캐릭터

70여종 홍보활용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 홍보와 어린이 및 신세대 포교를 위한 종단 상징캐릭터 70여 종을 개발했다. 부처님 좌상을 비롯 태고국사, 관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금강역사, 사천왕, 달마대사 등 기본 상징인물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동자승, 행자의 응용동작과 12지신 등을 활용한 이 캐릭터들은 전문디자인 회사 아이디컴(대표 송용근)이 제작했다. 이 캐릭터의 특징은 외국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기존 스타일을 탈피하고 우리전통 불화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붓터치 기법으로 외곽라인을 형성, 면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기법을 활용한 것. 색상도 단색의 지나치게 강렬한 색채를 중화 시킴으로써 현대적 기법으로 재창조 친숙함을 갖게 했다. 태고종은 이 캐릭터들을 종단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불교행사와 종단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지리산댐 반대 종교지도협 창립

지리산댐 건설 반대를 위한 경남 함양군 종교지도자협의회가 21일 창립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지역 종교지도자 40여명은 이날

함양군 함양읍 천주교 성당에 모여 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낙동강

을 죽이는 생명파괴행위"라며 "정부는 댐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수경스님, 정용규 함양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성후스님, 김종혁 목사(삼일공동대표), 김종민 신부, 강문성 교무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편 진주, 남원, 산청 등 지리산 일대의 종교지도자들은 10월중순 '지리산 권역 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 일원과 사찰, 교회, 성당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신도교육위 27일 발족

내년부터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시행된다.

조계종 신도교육위원회(위원장 정권)가 27일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신도교육위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준비모임과 7월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찰중심의 참다운 불자양성을 위한 신도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도교육위는 출범과 함께 종단차원의 신도 기본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신앙적 내용중심의 불교입문, 불교교리등 불자교육교재 및 교안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사면·복권에 협조" 정대스님, 총회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또 징계사 사면·복권 의지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18일 개최한 147회 임시중앙총회 개최식 인사말을 통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화합종단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총회의원 여러 분께서 지혜와 인력으로 소납과 집행부의 종단화합 의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정대스님은 또 "빠른 시일내에 징계자들에게 대한 사면·복권 등 구체적인 화합 방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총무행정 방향을 밝힌 인사말

첫 대목에서 거듭 사면·복권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대스님은 또 중앙승가대 이전, 불교회관 건립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특히 불교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지만,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안 착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북불교교류에 대해서는 "남북 불교교류와 사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계종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기금 조성에 총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조계사신협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종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고 "현재 조계사신협 이사장(지홍스님)께서 사태를 잘 마무리지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한마음으로 향한 추진을...

"조계종 조속 사면복권"

불교인권위 성명서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지원·한상범)는 18일 조계종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불교는 서로를 용서하는 대승보살의 육화(六和)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사면·복권 대상자 스님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우리는 사회법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계종에서도 스님들에게 사형과 다를 없는 '처벌'이란 죄의 명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총재비서실장 김한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좀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52년 일본에서 출생.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장관은 방위위원회 기획국장, 15, 16대 국회의원(전국구)을 역임했다. 종교는 없다. 소설가로 활동하다 92년 국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성운 기자

교구본사 사무장 교육

조계종 29·30일 유성서

조계종 교구본사 사무장 교육이 29·30일 유성 신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본사의 역할과 기능, 본사 총무행정체계 수립, 종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포교사 4백여명 연수

부산·경남 포교사단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16일 밤에 사설전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지중스님의 '포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의와 상담사례 발표, 신행담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최미희 기자

조계종 추경예산 12억 편성

남북교류기금 등

조계종 총무원은 12억원 규모의 불기 2544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무원은 18일부터 열린 147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총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데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총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북한문화재 복원을 비롯한 남북불교교류 사업,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 사찰환경 분정 해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세입 12억원은 미수분담금 5억5천만원과 월간(법회와 설법) 수익금 4천만원, 사찰토지처

분금 1억5천만원, 예산 절감액 4억 6천만원으로 마련한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남북불교교류 사업(1억5천8백만원),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9천6백만원), 사찰환경보존(1천6백만원), 종립학교관 리위원회(3천1백만원), 중앙신도회 지원(2천6백만원), 직장직능단체 대법회(3천7백만원), 시설특별회계(6억원), 중앙승가대 이전(6억원) 부분이 증액됐다. 정성운 기자

THE GRAND CULTURE FESTIVAL OF TIBET

신비의 불교성지

티벳문화대제전

수세기 동안 배일에 싸여 인류 최후의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티벳 종교와 하나 된 삶이 승고함으로 드러나는 티벳 그 신비의 결정인 티벳의 보물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1999년 기네스 기록에 오른 세계 최장형 티벳의 신화와 진실, 역사, 그리고 불교의 원형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금, 은, 진주, 산호 등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300여명의 라마승이 무려 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은 여러분을 영혼의 고향, 오래된 미래로의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중생이 한번 이 산을 돌면 죄업이 소멸되고, 세번을 돌면 금생에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순례의 오체부지가 끊이지 않는 해발 6714m의 성산, 수미산의 전설과 티벳 고승을 통해 들어보는 삶의 지혜 티벳 전통 민속공연, 그리고 흥신자, 박찬수의 쿠퍼런스 다정 김규현의 수미산 순례기록 사진과 함께 하는 세미나 등이 어우러진 세계 초유의 종합 전시가 펼쳐집니다.

2000.9.29(금) ~ 10.22(일) 고양시 꽃 박람회장 내 세계관

행사문의 : 02-706-0977 / www.okcast.com
전화예매 : 02-1588-3888 / www.proticket.com
관람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 티벳문화대제전 조직위원회 ■ 주관: (주)미디어택 닷 컴 ■ 후원: 외교통상부 / 주한중화인민대사관 / 고양시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교방송 / CCTV(중국국영방송)